
和解 協力時代の

統一教育 基本方向

1992

統 一 院

目 次

I. 序 文 /1

II. 統一教育의 意義와 課題 /3

III. 새로운 統一教育의 基本前提와 方向 /6

IV. 實行上の 留意點 /63

1. 學校에서의 統一教育 /63

2. 社會에서의 統一教育 /66

※ 附錄: 統一教育 參考 文獻資料 目錄 /71

I. 序 文

최근 韓半島를 둘러싼 國內外 情勢는 거센 變化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왔다. 밖으로는 동구 共產主義 諸國의 沒落과 蘇聯邦의 해체 등 2차대전 이래 世界秩序를 支配해 온 東·西 冷戰體制가 崩壞되고, 和解와 協力, 開放의 潮流 속에 새로운 국제질서의 改編 作業이 進行되고 있으며, 안으로 韓半島의 南과 北에서는 半世紀에 가까운 세월동안 지속되어 온 分斷과 對峙의 굴레에서 벗어나 같은 民族 사이에 和解와 協力, 平和共存의 關係를 모색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開拓해 나가고 있다.

오늘의 國際情勢 變化의 흐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근 半世紀에 걸친 양대 陣營間的 이데올로기 對立과 冷戰的 對決狀態가 빚어 왔던 政治, 軍事的 긴장감이 크게 緩和되고 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關係가 조성되어 가는 가운데, 개별 國家間에는 자국의 利益을 최우선으로 하는 國家利己主義의 追求와 경제 블럭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變換의 世界情勢 속에서 지난 半世紀 동안 분단의 굴레 속에 對決과 敵對의 늪에 머물러 왔던 南北韓關係에도 획기적인 轉換이 가져다 줄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分斷된 나라의 統一을 하루 속히 실현하여 民族의 自尊과 繁榮을 이룩해 나가야겠다는 높은 民族的 自覺과 熱情 속에 그동안 끈질기게 경주되어 온 民族의 統一努力은 마침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採擇 發效라는 歷史的인 結實을 가져 왔다. 이에 따라 이 땅에도 對決과 分斷의 時代를 청산하고 同族間의 和解와 協力の 關係를 쌓아 平和統一을 이룩해 나가는 새 歷史의 場을 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外部環境의 큰 變化와 함께 南北關係의 새로운 展開는 지금까지 우리가 追求해 왔던 統一教育의 目標과 方向, 그리고 그 內容에 있어 적지 않은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分斷과 對峙構造下에서 衰殘하여 온 統一意志를 새롭게 복돋우고, 우리가 선택한 統一의 길을 뒷받침 할 을 바른 認識과 態度를 가꾸어 나가는 일에 새로운 關心과 努力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要請에 부응하여 새로 開發된 本 指針書는 앞으로 각급 學校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教育의 모든 領域에서 統一教育을 실시함에 있어 더욱 우선되고 강조되어야 할 統一教育의 基本方向과 그에 관한 主題內容들을 再定立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Ⅱ . 統一教育의 意義와 課題

統一教育이란 우리 民族의 한결 같은 念願인 平和統一을 앞당겨 實現하고 나아가 統一된 國家에서 幸福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價値觀과 態度를 모든 國民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教育을 의미한다.

따라서 統一教育은 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努力과 아울러 統一以後의 삶을 準備하고 대비하는 內容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同時에 우리 國家의 存立과 國民의 安寧, 그리고 統一成就에 대한 現實的 障礙와 威脅要素에 대한 警戒心도 가르쳐서, 모든 國民이 均衡있고, 合理的인 統一觀을 形成하고, 이에 附合하는 行動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南北의 分斷과 統一에 관해서 國民들 간에는 多樣한 意見차이가 存在하고 있다. 우선 分斷의 苦痛을 直接 體驗하고, 6. 25 戰爭을 겪은 既成世代와 그러지 못한 젊은 世代 사이에 視角의 차이가 크다. 또 志向하는 世界觀과 理念에 따라 統一意識의 方向도 다르다.

統一教育은 各界 國民들 사이에 存在하는 이러한 視角의 차이를 融和시키고, 合理的인 歸一點을 發見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國民的 共感帶를 形成함으로써 民族統一의 새로운 발판을 構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를 위한 統一教育은 모든 教育機關(유치원, 初, 中, 高, 大)을 통해서 시도되어야 하되,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끔 새로운 모습으로 展開되어야 한다. 아울러 學校 밖에 있는 젊은이와 既成世代를 對象으로 한 統一教育도 改善되어야 한다. 學校 밖에서 이루어질 統一教育은 學校教育和 긴밀히 連繫되고 體系化되어야 하지만, 이 둘은 다른 방식으로 展開될 수밖에 없다. 특히 社會教育에 있어서는 多樣的 通路를 통하여 關聯된 問題들에 대한 知識과 情報를 正確하고 迅速하게 그리고 均衡 있는 觀點에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統一教育은 學校의 수업이나 社會教育의 講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문, 방송, TV, 라디오 등 大衆을 대상으로 한 모든 媒體와 手段들이 統一觀의 形成에 크게 기여하며, 南北 住民間의 體育, 文化藝術, 經濟 등 모든 分野에서의 交流와 만남의 體驗이 또한 統一觀의 形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統一教育은 그 對象이 어느 世代에 속하고 어떤 理念과 世界觀을 가지고 있든 스스로의 努力으로 民主的이고 平和的이며, 合法的인 節次에 따라서 成就해 나갈 수 있는 統一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認識을 갖게 하고, 그런 統一을 하루 속히 이루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使命意識을 가질 수 있도록 展開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民族間의 和解와 協力·交流가 活性化되는 새로운 時代가 南北間에 전개되고 있다. 休戰線을 가운데 두고 오랜 세월 갈라져 살아온 南北의 住民이 이제부터는 서로 만나고 交流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共同體的 삶의 場이 점차 넓혀지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國民 各自가 民族의 成員으로서 폭 넓은 認識과 歷史的 眼目を 가지고, 생활의 體驗을 통해서 民族共同體的 삶과 統一國家의 未來像에 대한 共感帶를 폭넓게 形成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새로운 統一教育의 基本前提와 方向

아래에 列舉된 25個 項目에 걸친 「統一教育의 基本前提와 方向」은 最近의 內外的 狀況의 變化에 副應하여 各種 統一教育課程과 活動에서 더욱 強調되어야 하거나 追加되어야 할 主題項目들을 選定하여 各 主題에서 다루어질 基本前提와 教授上 특히 留意되어야 할 基本觀點들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提示되어 있지 않다는 理由로 지금까지 包含되어 왔던 統一教育의 主要 要目들이 該當 教育課程에서 輕視되거나 排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提示된 主題項目에 관한 細部的 內容은 計劃된 프로그램에 알맞게 再編成되어야 한다.

統一論議의 基本前提

1. 統一의 當爲와 目標, 바람직한 統一像이 個個人的 意識 속에 확고히 定立되어야 한다. /P11
2. 統一은 7천만 民族成員 모두가 主體가 되고, 民族成員 모두에게 自由와 人權, 福祉와 繁榮을 約束하는 것이어야 한다. /P14
3. 祖國의 統一은 우리 民族成員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利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苦痛과 犧牲이 수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統一은 이러한 苦痛과 犧牲을 감내하고도 이루어야 할 우리 民族 모두의 實踐課題이다. /P16

4. 南北統一은 南北分斷과 對決로 消耗되어 온 民族의 潛在力을 하나로 結集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統一은 우리 民族의 發展에 寄與할 뿐만 아니라 東北亞의 安定은 물론 世界平和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 /P18
5.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우리 民族 內部 問題일 뿐만 아니라 國際的 問題이다. /P20
6. 統一에 대한 多樣한 主張과 開放된 論議는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統一論議에 있어 우리 體制의 基本價値와 規範은 尊重되어야 한다. /P22

分斷現實의 理解

7. 「6.25戰爭」은 民族史上 유례없는 悲劇이었다. 이것은 어떤 名分, 어떤 理由로도 正當化될 수 없으며,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P24
8. 南北分斷과 그 持續은 民族的 損失은 물론 個人的 苦痛과 不便, 그리고 民族史의 歪曲을 深化시켜 왔으며, 國家 發展과 民族 繁榮의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分斷은 하루속히 克服되어야 한다. /P26
9. 北韓社會의 現實과 그 變化의 趨勢를 客觀적으로 正確히 理解하는 일은 統一을 위해 重要하다. /P28

10. 國家安保政策의 目標은 우리 民族의 共通된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 內外로 부터의 威脅을 막을 수 있는 自己發展의 主體의 力量을 追求하는 것이어야 한다. /P30

統一與件 認識

11. 北韓의 「南朝鮮 解放論」에 입각한 對南 革命戰略은 平和統一의 成就에 가장 큰 障礙要因이다. /P32
12. 自由와 人權의 尊重은 모든 人類가 追求하는 普遍的 價値이다. 北韓 住民에게도 自由와 人權은 尊重되어야 하며, 이를 促求하는 것은 民族成員 모두의 責任이다. /P34
13. 分斷된 民族社會의 開放과 交流는 民族共同體의 삶을 回復 發展시켜 나가는 基本條件이다. 따라서 닫혀있는 北韓社會는 마땅히 開放되어야 한다. /P36
14. 北韓 住民은 우리와 함께 같은 共同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같은 民族社會의 構成員이다. 그러나 現在의 北韓政權은 우리 의 生存과 安寧을 威脅하는 實體이다. /P38
15. 南北韓은 UN을 포함한 國際社會의 責任있는 成員이다. 南北韓이 國際舞臺에서 서로 協力하며 民族 共同의 利益을 追求하는 것은 民族自尊과 統一의 成就에 크게 寄與하는 일이다.

/P40

16. 世界의 대부분 國家는 偏狹한 이데올로기적 價値의 盲目的 追求보다는, 個人의 自由와 人權 그리고 福祉의 增進을 追求하는 새로운 人間主義의 이데올로기를 具現해 나가고 있다.

/P42

統一政策

17. 統一推進의 原則과 過程, 統一된 國家의 未來像에 대한 汎國民的 合意가 統一政策의 原動力이 된다. /P45
18. 南北分斷의 克服을 위한 統一政策은 合理的이고, 實現可能하며, 全體的 合意를 바탕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民族的 正當性에 立脚하는 것이어야 한다. /P47
19.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오늘의 分斷現實과 時代的 潮流에 부합하는 가장 現實的 代案이다. /P49
20. 南北韓 社會의 同質性은 悠久한 民族史的 文化傳統에 根據하고 있다. 이러한 民族的 同質性이 우리 民族을 하나로 묶고 있는 連結고리이며, 統一을 推進하는 原動力이 된다. /P51
21. 南과 北, 그리고 全世界에 흩어져 살고 있는 海外同胞들이 모두 함께 한민족공동체를 構成하는 成員이며, 둘로 갈라져 있는 南과 北의 統一은 한민족공동체의 基盤을 鞏固하게 다져 나가는 일에 해당한다. /P53

統一準備

22. 南北의 住民들이 서로의 世界觀, 價値觀 그리고 삶의 方式의 差異를 認定하고 상대방의 立場을 理解하도록 努力하는 것이 民族社會의 統合을 促進하고, 統一 以後의 삶을 準備하는 始發点이다. /P55
23. 個人的 社會的 緊張과 葛藤, 利害關係를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의 培養이 統一을 앞당겨 나가며 統一에 對備하는 것이다. /P57
24. 統一을 앞당겨 實現하는 일 못지 않게 統一 以後의 삶에 對備하는 일도 民族의 繁榮과 發展을 위해 必要하다. /P59
25. 平和는 統一로 가는 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의 삶이 幸福한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 民族成員 모두의 意識 속에 定着되어야 할 最優先的 價値이다. /P61

統一論議의 基本前提

1. 統一의 當爲와 目標, 바람직한 統一像이 個個人的 意識 속에 확고히 定立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平和統一이란 命題는 더이상 ‘꿈에도 소원은 統一’이란 形態로 觀念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統一은 이제 우리 눈 앞에 다가온 現實問題로, 民族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實踐의 課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統一을 過去와 같이 觀念의 世界에서만 보는 경우 이에 대한 우리의 認識과 論議는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당면케 될 現實의 問題로 概念하는 경우, 우리가 志向해 나가야 하는 특정한 價値體系나 共同的 目標에 의해 그 內容이 한정지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눈 앞에 現實問題로 다가 온 統一問題에 대한 認識과 論議에 있어 國民 各自의 주된 關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에 집중되는 것이다.

첫째는 우리는 왜 統一을 이룩하려 하는가 하는 當爲에 관한 물음이다. 分斷의 初期에는 統一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疑問은 提起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分斷이 長期화된 오늘의 시점에서 統一이 왜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 社會

內에서도 적지 않게 일고 있는 實情이다. 統一의 當爲性에 대한 認識은 南과 北에 있어 크게 다르고, 우리 社會에 있어도 世代와 階層, 각기의 統一觀에 따라 적지 않게 달라져 있다. 이와 같은 統一의 當爲에 대한 질문은 원초적으로 國民 個個人的 統一意志와 결부되어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는 어떤 統一이 가장 바람직한 統一인가 하는 統一의 內容과 方法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南北韓의 見解는 크게 다르다. 우리는 民族成員 모두가 主人이 되고 主役이 되어 平和的인 方法과 民主的인 節次를 통해 南北이 共存 共榮할 수 있는 統一을 이룩하려 하고 있는 데 반해, 北韓은 暴力이나 非暴力的인 方法으로 “압제하에 있는 南朝鮮 人民들을 解放”하여 韓半島 全域에서 ‘無產階級’이 독재하는 共產化 統一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統一論議에는 어떤 內容과 方法의 統一이 民族의 現實과 將來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가를 分別하는 價値基準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는 統一의 目標 즉, 어떤 統一國家를 建設해 나가려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원하는 統一은 단순히 分斷을 克服하거나 分斷 以前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통일은 반드시 우리 民族의 理想을 實現할 수 있는 未來指向的인 것이 되어야 하고, 統一된 國家는 民族成員 모두의 念願을 담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도 南과 北은 立

場을 크게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 각자가 그리고 있는 統一의 未來像 역시 다르다.

넷째는 統一을 促進하거나 가로 막는 内外의 與件과 環境을 보는 觀点이다. 統一을 推進하는 데 있어 南北韓이 처하고 있는 오늘의 內部的 狀況과 國際的 環境與件은 중대한 變數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를 보는 視角과 評價 또한 각기 다르다.

이같이 서로 다른 統一의 當爲나 目標에 대한 생각들과 統一의 方法과 內容들에 대한 나뉠대로의 '像'이 하나로 統合될 수 있을 때 統一에 대한 國民的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統一을 指向하는 國民的 意志의 結集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統一教育에 있어서는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의 相異한 觀点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가 된다.

2. 統一은 7천만 民族成員 모두가 主體가 되고, 民族成員 모두에게 自由와 人權, 福祉와 繁榮을 約束하는 것이어야 한다.

分斷된 南과 北의 統一問題는 우리 民族 모두의 利害와 將來에 관련되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民族 전체의 運命을 決定하는 基本問題이다. 따라서 統一의 目標나 方法을 決定하고 推進하는 일은 어느 個人이나 團體, 特定한 階層이나 階級, 政權에 專橫되거나 民族成員 일부만의 利益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7천만 民族成員 모두가 이것을 決定하고 推進해 나가는 主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統一은 또 南과 北이 함께 번영(共榮)할 수 있고,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것(共益)이 되어야 한다. 統一이 어느 일방만의 繁榮과 福祉, 利益만을 約束하고, 어느 한편을 해롭게 하는 경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結果에 있어서도 民族 전체의 和合과 發展을 기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우리가 統一을 원하는 것은 統一 以後의 삶이 좀더 자유롭고 福된 것이 될 것이라는 期待 때문이다. 따라서 統一된 國家에서는 民族成員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自我를 實現해 나갈 수 있도록 個個人의 自由와 基本的인 人權이 保障되어야 하며 고른 福祉의 配分과 繁榮이 約束되어야 한다.

民族成員 모두가 統一의 主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統一이 特定 階級이나 集團만을 위한 것이 아닌 民族 전체의 福祉와 繁榮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當爲性和 連結되어 있다. 이런 뜻에서 民族 전체 成員이 아닌 어느 特定 階層이나 集團, 예컨대 民衆統一論者들의 ‘民衆’이나 北韓이 主張하는 ‘人民’, ‘無産階級’은 民族成員의 一部分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統一의 正當한 主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特定階級の 利益만을 위하는 共產化 統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 主題에서 특히 強調되어야 할 점은 ‘民族成員 모두가 統一의 主人이요 主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個別 成員 모두가 統一問題를 자기 멋대로 決定하고 獨斷적으로 行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3. 祖國의 統一은 우리 民族成員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利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苦痛과 犧牲이 수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統一은 이러한 苦痛과 犧牲을 감내하고도 이루어야 할 우리 民族 모두의 實踐課題이다.

統一이 되면 個人과 國家, 民族 모두가 分斷으로 인해 겪어온 갖가지 苦痛과 不便에서 벗어날 수 있고, 不必要한 南北韓의 競爭과 對決로 인한 國力の 消耗를 防止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들에게 統一은 많은 利로움과 함께 더 큰 發展의 機會를 제공해 줄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統一은 이같은 利로움과 機會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南北은 半世紀에 가까운 오랜 세월동안 상이한 理念과 體制 아래 서로 다른 삶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쌍방간에는 갖가지 制度와 生活樣式, 가치성향 등 여러면에서 많은 異質性이 현실로 存在하고 있다. 이러한 現實 속에서 南과 北이 統一이 되는 경우, 個人的으로나 社會的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 不便과 犧牲이 뒤따를 것이 分明하다. 뿐만 아니라 統一을 이룩해 나가는 過程에 있어서도 個人的 國家的 次元에서 요구되는 苦痛과 犧牲, 그리고 經濟的 負擔은 막중한 것이 된다. 그러나 統一은 이러한 負擔이나 苦痛때문에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어 둘 수 없는 民族的 至上課題이며 民族史的 소명이다.

이같은 統一課題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責任은 統一의 主體인

民族成員 전체가 되어야 한다.

이 주제에서는 첫째, 오늘의 시점에서 統一을 서둘러 成就해야 하는 이유를 分斷의 長期化에 따른 民族的 同質性的 파괴, 民族史와 傳統의 단절 가능성, 離散家族問題 해결을 위한 人道的 要請 등 시급하고 嚴重한 當面課題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줌으로써 統一 成就를 위한 민족적 召命意識을 고취해야 한다.

둘째, 統一問題에 대한 無關心과 傍觀的 態度는 분단된 나라에서 이 時代를 살아가고 있는 民族의 一員으로서 맡겨진 責任과 使命을 저버리는 것임을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눈앞의 安逸만을 추구하여 오늘의 不便과 苦痛·犧牲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祖國統一이란 내일의 영광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

4. 南北統一은 南北分斷과 對決로 消耗되어 온 民族의 潛在力을 하나로 結集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統一은 우리 民族의 發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東北亞의 安定은 물론 世界平和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

우리 民族은 뜻아닌 分斷으로 둘로 나뉘어 東西 兩 陣營間의 對決構造에 각기 따로 編入되어 쓸모없는 對決과 競爭을 지속함으로써 民族의 潛在力이 본의 아니게 浪費되고 그 發展이 크게 萎縮되어 왔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래 半世紀에 걸쳐 持續되어 온 東西 冷戰 體制가 무너진 오늘날에 와서는 南과 北은 더 이상 스스로의 뜻에 반하여 民族의 力量을 둘로 나누어 消盡시킬 理由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갈라진 조국의 統一을 염원하는 民族成員의 뜻과 힘을 한 곳에 結集시키고 民族 共同의 利益과 發展을 기해 나갈 수 있는 平和的 統一을 어떻게 성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統一을 이룩하여 둘로 나뉘어진 民族의 力量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 때 우리 民族은 上昇的 發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統一로 結집된 民族力量의 發揚은 우리 民族 스스로의 繁榮과 發展을 期約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韓半島와 東北亞에 平和와 安全, 그리고 發展을 도모해 나갈 수 있어서 周邊國의 利益과 世界平和, 人類의 未來에도 크게 貢獻하는 것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실현될 統一韓國은 국가간의 平和共存과 協力, 協同을 指向해 나가고 있는 時代潮流에 順응해 나가는 平和로운 善隣國이 될 뿐만 아니라 國際社會의 責任있는 成員으로서 義務를 다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한 교육에서는 韓半島에서의 統一은 주변국의 既存利益과 東北亞에서의 平和秩序를 威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東北아시아는 물론 世界平和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계사적 正當性을 가지는 것이라는 確信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5.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우리 民族 內部 問題일 뿐만 아니라 國際的 問題이다.

韓半島의 分斷이 第2次大戰 이후 형성된 冷戰體制下의 國際政治的 이해다툼의 結果에서 빚어지고 深化되어 왔듯이 이러한 分斷의 解決을 위한 統一 또한 周邊國家들 뿐만 아니라 世界 各國의 關心과 利害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國際政治의 版圖에서 차지하는 地政學的 위치 때문에 韓半島는 列國의 利害가 교차하는 銳角的 場所로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최근에 와 東西間의 冷戰體制 해체로 韓半島問題의 ‘民族 內部 問題化’ 경향이 촉진되고 있으나 韓半島 統一問題에 대한 國際的 影響力은 아직도 疉연한 現實로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져 있는 南北韓 社會를 하나로 統合하는 통일문제는 우리 民族 內部的 問題이다. 그러나 統一을 가능하게 하는 外的環境을 造成하는 문제는 周邊國家와의 協調가 필요한 것이므로 國際的 問題가 된다. 다시 말해 民族統一의 과제는 民族內部에서 먼저 解決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主導的 努力을 周邊勢力과 國際社會가 지지하고 後援해 줄 수 있도록 外的 環境을 능동적으로 造成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統一問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解決方案을 모색하는 데 있어는 韓半島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國際情勢의 變

化推移와 주변 各國의 對韓半島政策의 향방에 대한 理解가 필수적인 것이 된다.

우리의 統一에 영향을 미치는 國際環境的 側面을 이해시킴에 있어, 첫째로 우리의 自主的 努力의 重要性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解決하지 못하고 남에 依存하거나 외세를 빌려 解決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는 内外의 수많은 歷史的 事例가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의 統一問題를 단순히 民族 內部 問題로만 인식하는 경우, 문제의 本質을 理解하는데 있어 均衡을 잃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로 韓半島에서 統一을 기하고자 하는 우리 民族의 努力이 이웃 國家들 뿐만 아니라 世界 各國의 利益과 어떻게 一致하고 또 相反되고 있는가 하는 점과, 美·蘇를 비롯한 日本 등 이땅의 分斷에 歷史적으로 責任이 있는 國家들이 우리 民族의 再結合에 協助할 國際政治的 義務가 지워져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 力學構造와 국제정세의 變化推移를 정확하게 認識시키는 것은 統一의 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를 對備하기 위한 教育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6. 統一에 대한 多樣한 主張과 開放된 論議는 바람직하고 重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統一論議에 있어 우리 體制의 基本價値와 規範은 尊重되어야 한다.

조국의 統一問題는 民族構成員 모두에게 利害와 將來가 걸려있어 가장 중요한 關心對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民族成員이면 누구나 統一問題에 대해 자기의 意見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主張할 수 있도록 開放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로운 統一論議를 통해 政府는 참신한 政策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公開된 討論을 통해 국민적 共感과 合意를 導出해 낼 수 있고, 統一에 대한 參與意識도 높혀 나갈 수 있다. 따라서 國民 各自가 가지고 있는 統一에 대한 多樣한 主張을 發表할 수 있는 機會는 가능한 한 擴大되어야 하며 建設的인 論議는 적극 격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統一에 대한 論議는 우리가 선택한 自由民主體制의 基本價値와 基本規範이 尊重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論議에서 존중되어야 할 우리 체제의 基本價値와 基本規範은 우리 社會 전체 成員의 뜻에 따라 民主的으로 제정된 憲法과 實定法體系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論議는 이러한 實定法的 限界와 秩序 속에 전개되어야 하며, 論議에 참가하는 各自는 이러한 基本秩序에서 벗어나는 경우 자기 행위에 대한 責任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다.

이 主題를 다룸에 있어서 다음의 몇가지 점을 특히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는 自己主張만이 옳다는 獨善論이다. 이러한 독선론은 自己主張 이외에 다른 사람의 主張과 見解를 들을 수 있는 機會를 封鎖하게 된다. 獨善論은 개인의 人格的 特性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특정 理念이나 價値觀에 맹목적으로 執着할 때에도 생겨난다. 自己 주장만이 옳다는 非妥協的이고 偏頗的인 思考야 말로 統一에 대한 자유로운 論議와 參與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障礙가 된다.

둘째는 感傷的, 非現實的인 논의와 無責任한 주장이 결과하는 副作用이다. 統一에 대한 幻想的 期待나 감상에 빠진 나머지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주장을 내세우거나, 특정한 理念路線에 偏向된 論議의 전개는 國論의 分裂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이다.

셋째는 黑白論理나 極端論理에 빠질 위험성이다. 統一問題에 대한 價値判斷과 選擇에 있어는 지극히 다양한 代案이 있을 수 있는 것임을 認定하여야 한다. 偏狹하고 고식적인 思考方式에서 오는 極端論이나 冷戰的 視角에 기초한 黑白論理에 빠질 위험성은 항상 경계되어야 한다.

넷째는 偽裝된 統一論議의 대두 가능성이다. 통일논의를 憑藉하여 숨겨진 또다른 目的을 달성하려는 企圖는 건설적이며 生産的인 統一論議의 전개를 위해 항상 경계 되어야 한다.

分斷現實의 理解

7. 「6.25 戰爭」은 民族史上 유례없는 悲劇이었다. 이것은 어떤 名分, 어떤 理由로도 正當化될 수 없으며,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6.25 戰爭」은 분명히 北韓의 南侵으로 시작된 同族相殘의 悲劇이요, 이 땅에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反民族的 行爲이었다. 따라서 그 어떤 명분도 民族相殘의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正當化하거나 合理化할 수는 없는 것이다.

「6.25 戰爭」으로 인해 우리 民族 모두가 겪게된 苦痛과 損失, 개인적·민족적 발전 機會의 喪失이 얼마나 莫大하고 深刻한 것이었던가는 再論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재삼 喚起되어야 할 것은 이것이 南北의 分斷을 固着시키고 같은 民族 사이에 不信과 적대감을 심화시킨 決定的 要因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敎育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특히 強調되어야 할 점은, 첫째, 이 戰爭이 우리 民族 모두에게 얼마나 큰 犠牲과 苦痛을 안겨준 것이었으며, 그 殘影이 오늘의 우리 現實 속에서 어떻게 投影되고 있는가를 특히 戰後에 태어난 後代들에게 정확하게 認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6.25」가 주는 教訓을 거울 삼아 韓半島에 同族相殘의 悲劇과 전쟁으로 인한 慘禍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覺悟를 다짐케 하고, 이를 防止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야 한다. 紛爭解決方式으로 무력이나 暴力을 使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民族과 人類에게 얼마나 큰 罪惡이 되는가를 이해시키고, 平和的인 方法의 統一을 追求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韓半島에서 戰爭 再發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平和를 定着시켜 나가는 것이 南北關係의 개선과 平和統一의 出發點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 이 땅에 平和를 지켜나가는 길은 무엇보다도 平和를 파괴하는 자를 效果的으로 制裁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

8. 南北分斷과 그 持續은 民族的 損失은 물론 個人的 苦痛과 不便, 그리고 民族史의 歪曲을 深化시켜 왔으며, 國家 發展과 民族 繁榮의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分斷은 하루속히 克服되어야 한다.

조국의 分斷은 오늘날 우리들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生活領域과 意識構造에 근본적인 影響을 미치고 있는 民族史의 事件이다. 이것은 日帝의 侵略과 民族의 解放, 民族의 將來에 대한 左·右翼의 對立, 첨예한 東·西 兩陣營의 대치와 對決, 韓國戰爭의 발발, 南과 北간의 이데올로기와 體制의 競爭 등을 배경으로 하는 일련의 歷史的 事件의 結果이며 原因이 되는 것이다.

南과 北의 分斷은 個人과 國家, 그리고 우리 民族 모두에게 큰 苦痛과 損失을 가져다 주고 있다. 1千萬 離散家族들에게는 血肉 離散의 아픔과 望鄉의 恨을 안겨주고 있으며, 民族成員 모두에게는 갖가지 不便과 자유를 制約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分斷은 民族的으로 볼 때 불필요한 南北의 競爭과 軍事的 對峙, 資源의 分割 사용 등으로 막심한 民族力량의 浪費와 損失을 초래케 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이한 理念과 體制下의 長期화된 分斷은 우리의 民族史를 歪曲 變質시켜 왔다. 특히 이러한 現象은 우리의 傳統文化와 歷史를 낳은 時代의 遺産이라 하여 抹殺하고 이른바 ‘社會主義의 革命文化’를 인위적으로 定着시키려 노력해 온 北韓 땅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南北分斷과 분단상태의 長期化가 오늘에 結果하고 있는 이같은 否定的 現象들과 개인적 민족적 損失과 病弊들을 구체적으로 認識케 하고, 이를 克服하기 위한 民族的 意志를 喚起시켜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 主題에서 특히 留意해야 할 것은, 첫째로 이땅에 分斷을 초래케 한 歷史的 背景과 原因을 客觀的 均衡的 시각에서 理解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둘째로 分斷으로 말미암아 苦痛 속에 살아가고 있는 南北의 千萬에 가까운 離散家族과 失鄉民들의 처지를 같이 理解하고 그 苦痛을 함께 나누며, 離散家族 問題의 조속한 해결을 民族의 良心에 호소하는 것이다.

셋째로 分斷의 持續이 앞으로 우리 民族 모두에 가져다 줄 結果를 상기케 하여 이를 하루빨리 克服해 나가야 하는 民族史的 當爲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9. 北韓社會의 現實과 그 變化의 趨勢를 客觀적으로 正確히 理解하는 일은 統一을 위해 重要하다.

分斷 이후 북녘땅의 住民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오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각 分野에 걸친 實情을 正確히 把握하는 것은 統一의 相對方을 바르게 理解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同胞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北韓體制의 變化可能性과 그 方向을 正確히 豫測하고 그러한 變化가 우리에게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인가를 客觀적으로 判斷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는 일은 統一을 主導적으로 推進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까지를 전망하여 예상되는 난제에 對備하는 일이 된다.

오늘의 北韓社會를 올바르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 社會를 支配하고 있는 主體思想이란 독특한 支配 이데올로기의 正體가 무엇이며, 그것이 北韓社會뿐만 아니라 南北韓關係에 작용하는 逆機能을 正確히 把握하는 데 특별한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

향후의 統一教育에서는 南北韓 社會현상의 比較를 통해 우리 體制의 優越性을 피교육자에게 確認시키려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늘의 北韓社會가 처하고 있는 각 분야 實相 중에서 앞으로 統一을 추진해 가는 過程과 統一 以後의 삶에 근원적으로 障碍가 될 要素

와 問題點들이 무엇인가를 發見케 하고 이에 대한 對備策을 찾아 보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 教育의 現場에서 強調되어야 할 점은 첫째, 北韓 사회 내에도 다양한 勢力들과 사회적 葛藤이 存在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北韓 社會의 變化를 促求하고 있는 內在的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과,

둘째, 北韓社會에서 살고 있는 住民의 生活相을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外形的 모습보다는 內在的 삶의 內容을 評價하여야 한다는 것,

셋째, 北韓實情을 알려줌에 있어서는 우리 社會와 달라진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는 北韓社會에 아직도 殘存하고 있는 民族의 同質的 要素를 발견케 하고, 이를 토대로 각 分野에서 같은 民族으로서의 同質性을 回復 發展시켜 나갈 方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등이다.

10. 國家安保政策의 目標은 우리 民族의 共通된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 內外로 부터의 威脅을 막을 수 있는 自己發展의 主體的 力量을 追求하는 것이어야 한다.

國家安保政策은 우리 國家의 存立과 國家成員들의 生存, 사회의 安寧秩序를 威脅하는 모든 대내외적 挑戰要素로 부터 安全保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目標로 한다. 따라서 南과 北이 대결과 敵對의 關係를 벗어나 和解와 協力을 추구해 나가는 새로운 時代에서 뿐만 아니라 統一을 이룩한 以後에 있어도 國家安保政策은 여전히 重要性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國家安保政策은 그 대상범위를 ‘國家의 存立과 安寧秩序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 ’에 국한시켜 왔다.

그러나 새로운 統一指向時代를 맞아 이러한 國家安保概念은 좀더 包括的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國家안보정책의 새 概念에는 ‘統一의 成就를 威脅하는 要素와 統一된 民族國家의 發展 保護’라는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廣義的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된 安全保障觀 아래 우리의 ‘國家安保’는 北으로 부터의 威脅에 對應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統一에 근본적인 障礙가 되거나 그 成就를 威脅하는 현존하는 요소의 除去와 그 발생의 豫防을 의미하는 ‘統一安保’라는 보다 높은 次元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安保意識의 강조는 統一意識과 調和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兩側面의 均衡있는 강조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狀況과 國家目標의 二重性, 즉 北韓을 상대로 統一을 추진해 나가면서도 國家安保를 威脅하는 주된 대상으로 北韓을 警戒하지 않을 수 없는 分斷狀況下의 南北關係가 띠고 있는 特殊性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11. 北韓의 「南朝鮮 解放論」에 입각한 對南 革命戰略은 平和 統一의 成就에 가장 큰 障礙要因이다.

北韓이 지난 40여년간 執着해 온 이른바 「南朝鮮 解放論」은 ‘南朝鮮’이 ‘美帝’의 植民地的 支配하에 놓여 있다는 現實歪曲的 偏執과 時代錯誤的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階級解放論」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南朝鮮 解放論」과 이에 기초한 大南 革命戰略은 오늘의 남북한 現實과 與件에 비추어 볼 때 전혀 不可能한 것으로서 다만 北韓 內部的 體制維持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北韓政權이 이같은 妄想에 매달려 있는한 韓半島에는 항상 緊張과 不安이 造成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威脅과 對應’이라는 惡循環이 그 동안의 南北關係를 支配해 온 것이다.

이제 南北間에는 세계적인 開放과 協力の 조류 속에 「南北基本 合意書」의 채택을 계기로 和解와 協力の 기틀이 마련되었고, 平和 속에 共存 共榮의 關係를 구축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關係의 모색에 있어 根本的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北韓側이 지금까지 고집해 온 對南 赤化革命戰略을 拋棄할 것이라는 確信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南과 北이 진정으로 和解하고 交流·協力하는 가운데 信賴를 쌓아 南北關係를 획기적으로 改善하고, 나아가 統一에 接近해 나가기 위해서는 南北關係의 進展을 가로 막고 있는 이러한 걸림돌이 우선 제거되어야 한다. 대북관계에서 暴力的 方法이 아닌 對話와 協商을 통해 平和的 統一을 追求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基本立場은 지난 60年代 이후 수없이 表明되었고 또 確認되어져 왔다. 남은 問題는 北韓側이 이미 「南北基本合意書」 第1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相對方的 體制를 破壞, 顛覆하려는 일체의 行爲를 하지 않는다’는 約束을 지켜나가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教育·弘報의 주제로서 이 主題를 다룰 때에는 北韓의 대남 革命戰略에 내포되어 있는 北側의 企圖와 그 危險要素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과 함께 北韓側이 이러한 對南戰略 노선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統一 以前 東·西獨관계의 경우 東獨은 폭력적 수단에 의한 對西獨 顛覆企圖의 拋棄를 일찍부터 천명함으로써 서로가 체제전복의 威脅으로 부터 벗어나 實質的인 關係改善의 길을 열어 갈 수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2. 自由와 人權의 尊重은 모든 人類가 追求하는 普遍的 價値이다. 北韓 住民에게도 自由와 人權은 尊重되어야 하며, 이를 促求하는 것은 民族成員 모두의 責任이다.

人間이 人間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基本條件으로서 필요한 自由와 人權을 保障해 줄 것을 要求하는 것은 어떤 政治體制나 理念 아래에서도 正當化되는 天賦的 權利이며, 어느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基本權利의 하나이다.

개인적 自由의 擴大와 人間 尊嚴性的의 保障은 온 人類가 지금까지 努力을 傾注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追求해 나가야 할 普遍的 價値이다.

現代의 모든 國家에서는 基本的 人權을 基本法(憲法)으로 保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 會員國들은 각기 자국민들에게 基本的 人權을 保障해 줄 것을 憲章上的 義務로 받아들이고 있다.

北韓 역시 우리나라와 함께 人權의 保障을 요구하는 유엔憲章을 비롯한 여러 國際的 條約과 協定에 調印하고 있다. 最近들어 社會主義 國家들에서조차 自由와 人權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한 民主化와 開放化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北韓의 住民들이 아직도 ‘居住移轉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등 人間으로서 누려야 할 基本

的 自由와 權利를 保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 越南한 많은 인사들과 國際人權機構 등에 의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北韓의 同胞들에게 人權을 保障해 줄 것을 要求하는 것은 같은 民族으로서 이땅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당연한 責任이며, UN을 비롯한 수 많은 國際機構와 協定들에 같이 加入하고 있는 會員國의 하나로서 國際法的으로 保障받고 있는 正當한 權利가 되는 것이다.

統一教育의 主題로서 이 問題를 다룸에 있어서는 北韓住民들에게 基本的인 人權을 保障해 줄 것을 要求하는 우리의 主張은 北韓의 內政을 굳이 간섭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民族共同體的 삶을 함께 해 나갈 北韓同胞들에게 人間으로서 最小限의 복된 삶을 保障해 줄 것을 희망하는 同胞愛의 發露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13. 分斷된 民族社會의 開放과 交流는 民族共同體의 삶을 回復 發展시켜 나가는 基本條件이다. 따라서 닫혀있는 北韓 社會는 마땅히 開放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國際社會는 相互 開放과 호혜적인 交流와 協力을 통한 福祉 增進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 이같은 相互 開放과 協力の 擴大 趨勢는 자국의 國家的 利益뿐 아니라 世界平和와 인류의 繁榮, 발전에 寄與할 수 있다는 새로운 思考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世界史的 潮流에 발맞추어 완전한 統一이 되기 以前이라도 南北間에 막혀있는 담을 헐고 交流와 協力을 增進해 나감으로써 社會, 文化, 經濟 등 삶의 각 領域에서 하나의 民族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共同體의 삶을 回復하고 共存, 共榮을 이룩해 나가자는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또 北韓의 立場에서 볼 때에도 지금까지 고집해 온 閉鎖路線을 버리고 社會를 制限的으로나마 開放하는 것이 오늘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克服해 나갈 活路가 되는 것이다. 社會의 開放 없이는 가장 필요로 하는 先進技術이나 外國의 資本을 導入할 수도 없다. 또 ‘우리 식대로 살자’는 政治思想的 統制만으로는 바닥에 떨어진 勞動意慾을 자극할 수 없어 生産性을 높힐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北韓社會의 開放을 요구하는 것은 南과 北이 더불어 살

아가는 民族共同體에 北韓이 함께 參與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
기 위한 것이지 北韓側이 염려하는 것처럼 北韓社會를 혼란에 빠
뜨려 서독식 「吸收統合」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北韓社會가 오늘까지도 대내외 閉鎖政策을 固守
하면서 ‘우리 식대로 살자’는 口號 아래 政治思想的 住民統制를
강행하고 있는 理由를 교육현장에서 확실히 糾明해 주는 것이 필
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北韓體制가 당면하고 있는 隘路와 苦悶
을 우회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며, 北韓社會가 앞으로 어떤 方
向으로 나갈 것인가를 예측케 할 수 있는 것이다.

14. 北韓 住民은 우리와 함께 같은 共同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같은 民族社會의 構成員이다. 그러나 現在의 北韓 政權은 우리의 生存과 安寧을 威脅하는 實體이다.

휴전선 이북의 北韓住民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우리 民族의 갈라져 있는 또 다른 한쪽으로서 언젠가는 함께 살아가야 할 對象이다. 그러면서 北韓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安保를 끊임없이 威脅해 온 實體이기도 하다. 때문에 北韓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同伴者가 되는 동시에 방심할 수 없는 警戒의 對象이 된다. 한 때 우리는 反共, 勝共, 滅共 등의 용어들에서 表象되어 왔듯이 北韓이란 對상을 威脅의 측면만을 強調하여 보아왔다. 그러나 이제 南과 北은 對決과 반목을 벗어나 和解와 協力을 증진해 나가며, 平和속에서 共存·共榮을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時代를 맞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北韓觀은 時代의 要求에 맞게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 政府는 지난 1988년에 발표한 「7.7宣言」에서 南北韓은 더 이상 敵對·對決하는 상대가 아니라 共同의 繁榮을 향해 協力해 가는 同伴者의 관계로 發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北韓을 하나의 民族 共同體 속에서 더불어 살아나가야 하는 한민족 構成員의 一員으로서 民族的 團合과 協力을 도모해 나갈 ‘共生’ ‘共榮’의 상대방으로 宣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北韓에 대한 認識의 轉換이 곧 北韓에 대한 警戒

心の 완전 解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北韓의 住民은 통일을 함께 이룩해 나갈 同伴者요 ‘共生 共榮’의 相對이지만, 완전한 統一이 이룩되지 않고, 北韓政權이 아직도 對南 革命路線을 완전히 拋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生存과 安全을 지켜나가기 위해 警戒를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相對者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認識시켜야 한다.

北韓에 대한 幻想的 視角과 함께 冷戰時代의 固定觀念도 함께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北韓을 상대로 平和統一을 성취하기 위한 努力을 繼續하면서 동시에 北韓으로부터 오는 安保上的 威脅에 對處해 나가야 하는 二重的 特殊狀況에 처해 있다. 이점을 國民들에게 올바르게 理解시켜 줌으로써 어느 쪽에도 크게 치우침이 없는 均衡的 視角을 항상 견지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教育에서 특히 留意해야 할 점은 우리와 함께 共同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北韓 住民과 우리의 生存과 安寧을 威脅하는 실체로서 北韓政權이 동일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5. 南北韓은 UN을 포함한 國際社會의 責任있는 成員이다. 南北韓이 國際舞臺에서 서로 協力하며 民族 共同的 利益을 追求하는 것은 民族自尊과 統一의 成就에 크게 寄與하는 일이다.

南과 北은 지난 40여년 동안 東西로 나뉘어 對決, 對峙해 온 이 데올로기적 冷戰體制에 각각 編入되어 國際社會에서 불필요한 競爭과 對決로 民族的 力量을 소모하고 民族的 威信을 실추시키는 일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최근 東西 兩 陣營間的 冷戰的 對決構造가 해체되고, 南과 北이 나란히 유엔에 加入됨을 계기로 유엔을 비롯한 國際社會에서 南北關係는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南과 北은 현재 유엔을 비롯한 수많은 國際機構와 協約에 각기 會員國으로 加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100여개국을 넘는 국가들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國際社會의 책임있는 成員으로서 이제 國際舞臺에서 當당한 位相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國際舞臺에서 앞으로의 南北韓關係는 쓸모없는 對決과 競爭을 중지하고 서로 協力하는 가운데 民族 公同의 利益과 民族의 尊嚴을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南北關係의 모색에 대한 쌍방의 約束은 지난 1992年 2月 19日 南北間에 합의 발효된 「南北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第1章 第6條에 명시되어 있다.

이 主題를 다룰 때에는 民族 共同의 利益을 증진하고 位相을 높여나가기 위해 南과 北이 國際社會에서 공동으로 努力하며 協調해 나가는 것이 왜 바람직하며, 그러한 結果가 南北關係의 다른 부분에 미칠 肯定的인 影響과 함께 統一의 成就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地球村 속에서 온 人類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가운데 共同의 理想을 추구해 나가는 世界人으로서의 폭넓은 視野와 責任意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눈앞에 다가 온 21世紀와 統一 國家에서의 삶에 對備하는 것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16. 世界の 대부분 國家는 偏狹한 이데올로기적 價値의 盲目的 追求보다는, 個人的 自由와 人權 그리고 福祉의 增進을 追求하는 새로운 人間主義的 이데올로기를 具現해 나가고 있다.

동구 共產圈 여러나라에 있어서의 民主化 改革과 소연방의 崩壞, 공산당 解體 등을 계기로 東西 冷戰體制가 무너지고 새롭게 再編된 오늘의 國際秩序 속에서 世界の 대부분 國家들은 지금까지 東西 冷戰構造 아래 매달려 왔던 偏狹한 이데올로기적 價値의 追求 보다는 國民들에게 自由와 人權의 확대와 福祉의 증진을 통해 個人的 '삶의 質' 을 높여주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이른바 人間中心主義的 이데올로기의 추구가 오늘의 時代的 潮流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脫이데올로기의 세계적 趨勢는 2次世界大戰 後에 탄생한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들에서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社會主義 理念路線의 추구 結果가 國民들에게 기본적인 食生活 問題까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判明됨에 따라 얻어진 歷史的 敎訓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의 이같은 世界史的 潮流 속에서도 舊時代的 이데올로기의 굴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世界에서 유일한 冷戰의 孤島로 남아 있는 곳이 바로 韓半島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 南과 北 사이에 歷史的인 「基本合意書」가 採擇 發效됨에 따라 이 땅에서

도 共存 共榮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려 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 빨리 冷戰時代에 길들여진 고루한 이데올로기적 對決意識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民族成員 모두가 좀 더 많은 自由와 人權, 고른 福祉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겨루는 새로운 人間中心主義의 理念의 경쟁대열에 同參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對決에 매달려 있는 한 온 人類가 和解와 協力の 새 역사를 열어 나가는 오늘의 時代的 潮流에 副應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平和統一의 길도 개척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의 理念教育은 첫째, 우리가 선택한 最善의 代案으로서 自由民主主義體制의 기본적 價値들에 대한 確信을 심어주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挑戰的 이데올로기들의 理論體系가 가지고 있는 強弱點들을 객관적으로 批判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大學 이상의 共產主義 理論批判教育에서는 이미 歷史的 事實로 實證된 理念的 虛構性을 強調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資本主義社會의 내재적 모순을 分析하고 공격하는 이론무기로 우리 社會內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革命論理의 正體를 밝혀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소재로서 冷戰的 이데올로기 意識의 止揚을 강조하는 것이 모든 이데올로기의 終焉을 뜻하는 것으로 誤解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南北間에 상존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對決意識이 앞으로 상호관계의 개선과 統一을 기해 나가는 데에 어떤 機能을 할 것인가를 省察케 하고, 이를 克服해 나가야하는 民族的 努力의 당위성을 確認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統一政策

17. 統一推進의 原則과 過程, 統一된 國家의 未來像에 대한 汎國民的 合意가 統一政策의 原動力이 된다.

統一의 主體이며 주역인 國民 모두가 가지고 있는 統一問題에 대한 생각과 指向은 各樣 各色이다. 이같이 서로 다른 國民들의 생각과 뜻하는 바를 하나로 묶어 統一을 이루어 나가려는 綜合된 意志의 표현이 國民 主權의 수임자인 政府가 樹立 提示하는 統一 政策과 方案인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의 광범위한 뜻을 수용하지 못한 政策과 方案은 기본정책으로서의 正當性和 推進力을 함께 잃게 된다.

統一에 대한 國民들의 생각은 대부분 統一을 어떻게 推進해 나갈 것인가 하는 統一의 原則과 어떤 過程을 거쳐 어떤 모습의 統一國家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세가지로 集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統一된 國家의 樣態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統一課業에 임하는 民族成員 모두의 뜻과 情熱을 결집시켜 나갈 理想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 핵심 要素들은 統一에 관한 대부분의 基本政策이나 方案에 함께 수용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統一方案은 이러한 統一의 原則과 過程, 통일국가의 未來像을 함께 提示하고 있다.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과 北韓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이 담고 있는 內容을 정확히 알게하고, 과연 어느 方案이 民族 전체가 염원하는 統一像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分別할 수 있는 眼目を 길러주는 것이 統一教育의 일차적 課題가 되는 것이다.

이 主題와 관련하여 특히 強調되어야 할 점은 적절한 國民的 合意의 節次를 거쳐 일단 政府의 統一政策으로 확정된 것은 전체 國民의 뜻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民主的인 節次를 통해 수립된 특정의 統一方案이나 政策方向이 자신의 個人的 所信이나 소속 集團의 主張과 다르다 해서 무조건 反對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無責任한 行動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國民的 合意基盤을 破壞하는 일이 되어 統一政策 추진에 위해로운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留意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民主國家에서 모든 政策 推進의 原動力은 國民的 合意에서 發源하는 것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18. 南北分斷의 克服을 위한 統一政策은 合理的이고, 實現可能하며, 全體的 合意를 바탕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民族的 正當性에 立脚하는 것이어야 한다.

統一을 실현시켜 나갈 方法과 方向을 정하는 統一政策이나 統一方案에 대한 評價는 각자가 지니는 歷史意識, 內外 情勢觀, 信念體系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統一政策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 基準에서 判斷되어야 한다.

첫째는 合理性이다. 제시된 統一政策이나 方案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 나가야 할 道理와 理致에 맞는 것인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合理的이지 못한 政策은 바람직한 것이 될 수도 없다.

둘째는 現實性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한 目標나 理想을 提示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內外狀況이나 與件에 비추어 실제로 實現될 可能性이 없는 政策이나 方案은 결과적으로 쓸모 없는 것이거나 우리를 欺瞞하는 것이 될 뿐이다.

셋째는 全體的 合意性이다. 統一推進을 위한 특정의 政策이나 方案의 내용이 사회 各階層, 나아가서는 전체 成員의 意思를 어느 만큼 수렴하여 反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支持가 얼마나 廣

範圍한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이다. 어떤 統一方案이나 政策이 아무리 合理的이고 現實性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特定 階層이나 集團의 제한된 意見이나 利益만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라면 民族 全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없다.

넷째는 民族的 正當性이다. 統一政策이 추구하는 目的이나 方向, 방법이 우리 民族 전체가 指向해 나가는 바와 背馳되는 것이거나 民族 전체의 意志를 結集 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민족적인 正當性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南北間에는 머지않아 각자의 統一方案(南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과 北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正當性 攻防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國民들에게 自身이 선택할 統一政策이나 남북한의 統一方案을 평가할 수 있는 合理的 基準을 제시해 주고, 이러한 基準에 따라 그것의 正當性을 올바르게 評價할 수 있는 眼目を 길러주는 일은 앞으로의 統一教育에서 더욱 중요한 意味를 가지게 된다.

19.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오늘의 分斷現實과 時代的 潮流에 부합하는 가장 現實的 代案이다.

分斷이래 지금까지 南과 北 양쪽은 統一을 최대의 “民族的 課題” 또는 “最上의 國家政策目標”로 표방하고 이의 實現을 위한 각기의 統一方案을 내세워 왔다.

이중 지난 1989年 9月 11日 發表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서로 다른 體制와 理念 속에서 半世紀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살아 온 南北 사이에 쌓여진 不信과 敵對感을 씻고, 훼손된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하여, 7천만 겨레 모두에게 自由와 人權, 幸福이 함께 보장되는 統一된 民主國家를 건설해 나가는 基本原則과 過程, 지향해 나갈 目標를 밝히고 있는 平和統一의 基本章典이 되는 것이다.

統一教育의 모든 과정에서 이 統一方案의 合理性, 現實性, 國民的 合意性, 民族的 正當性을 구체적으로 해명해 줌으로써 그 妥當性과 正當性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聯邦制 統一方案을 설명하고, 이 方案이 안고 있는 問題點과 策略性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統一方案의 현실적 正當性에 대한 確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統一方案을 이해시킴에 있어는 특히 統一에 이르기까지의 中間段階에서 民族統一業務를 효과적으로 管理해 나갈 暫定體

制로서 기능하는 「南北聯合」의 필연성과 이것이 北韓側이 주장하는 「聯邦制」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확연하게 糾明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주제에서는 統一問題와 관련된 政府의 모든 對內外政策과 對話戰略들이 우리의 기본 統一章典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하여 展開되고 있음을 알게 하고, 統一政策의 추진에 관련된 國內외적 環境與件과 條件들의 유기적 關係와 그 影響力을 정확히 理解시키려는 노력이 並行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또한 모든 政策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統一方案이나 統一政策의 變更 可能性도 함께 시사되어야 한다. 현재의 統一政策이나 方案은 오늘의 內外環境이나 與件을 감안한 最善의 代案인 것임을 지적하고, 狀況變化에 대응한 對策과 方針의 변경이 政府政策의 혼선이나 無原則으로 誤解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20. 南北韓 社會의 同質性은 悠久한 民族史的 文化傳統에 根據하고 있다. 이러한 民族的 同質性이 우리 民族을 하나로 묶고 있는 連結고리이며, 統一을 推進하는 原動力이 된다.

우리 民族의 同質性은 오랫동안 하나의 共同體의 삶을 영위해 오면서 형성된 民族 高유의 文化傳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南과 北으로 分斷된 오늘에서도 이것은 우리 民族成員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갈라져 있는 民族의 統一을 추진하는 原動力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民族의 同質性은 오늘에 와 南北分斷이 초래한 高유 文化傳統의 變質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破壞되고 毀損되어 있다. 半世紀에 가까운 세월동안 서로 다른 體制와 理念 속에서 살아 온 南北韓 사이에는 價値觀과 思考方式, 生活方式面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民族 文化傳統의 이질화가 계속 放置되어 南과 北의 주민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單一 共同體意識이 완전히 喪失되는 경우, 이 땅에는 서로 다른 別個의 共同體가 영구히 定着되고 말 것이며, 갈라진 民族의 統一을 추진할 名分이나 當爲도 잃게 되고 만다.

이같은 民族史的 危機를 근본적으로 克服해 나가는 길은 하루 빨리 統一을 이루어 分斷된 民族社會를 하나로 統合하는 것이다. 그러나 民族社會의 완전한 統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하에

서 統一 以前이라도 날로 심화되어가는 南北間의 社會·文化分野에서의 異質化 현상을 豫防하고 克服해 나가기 위한 努力은 서둘러 경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번 이질화된 價値觀과 文化體系의 同質化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하는 일은 갈라진 民族社會의 실질적인 統合을 促進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의 共同體의 삶을 對備해서도 艱요한 과업의 하나가 된다.

우리는 한 겨레라는 同族意識을 키워나가고 同族間의 異質感을 解消해 나갈 수 있는 契機은 南北 상호간에 交流를 促進해 나감으로써 文化傳統의 共有部分과 민족적인 紐帶感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民族成員 사이의 往來와 接觸을 비롯한 社會·文化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の 기회를 擴大해 나가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交流와 協力を 통해 함께 民族成員 모두가 우리 民族에 傳統적으로 계승되어 온 文化意識과 價値觀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어 잃었던 民族의 一體感과 同族意識이 되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統一教育의 主體로서 이 問題를 다룰 때에는 궁극적인 統一에 앞서 南北間의 다각적인 人的 物的인 交流와 協力の 증진을 통해 민족社會의 統合基盤을 하나씩 다져나가고자 하는 우리 統一政策 基調의 現實性과 合理性을 상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21. 南과 北, 그리고 全世界에 흩어져 살고 있는 海外同胞들이 모두 함께 한민족공동체를 構成하는 成員이며, 둘로 갈라져 있는 南과 北의 統一은 한민족공동체의 基盤을 鞏固하게 다져 나가는 일에 해당한다.

우리 民族은 新羅의 3국 통일 이래 1300여년 동안 이 땅에 하나의 民族共同體의 삶을 유지 發展시켜 왔다. 따라서 强要된 分斷으로 말미암아 破壞된 民族共同體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우리의 努力은 당연한 民族史的 召命이며, 再統一의 추진은 저버릴 수 없는 民族 전체의 責務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韓半島의 南과 北, 그리고 世界 各國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7千萬 同胞는 같은 血統, 같은 言語와 歷史, 고유의 傳統과 文化意識을 함께 지니고 있는 한민족의 構成員으로서 각자는 그가 어느 곳 어떤 環境에서 살고 있든 남다른 歸屬意識과 끈끈한 情緒的 紐帶感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의 民族’이란 意識에 기초하여 성립되는 이러한 民族共同體意識이야말로 民族을 하나로 묶고 있는 끈이요, 갈라져 있는 南北의 住民을 다시 하나로 結合시키는 가장 큰 名分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意識이야말로 온 民族을 統一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힘의 源泉이 되는 것이다.

南과 北의 同胞뿐만 아니라 全世界에 흩어져 살고 있는 500萬

海外同胞 모두가 한민족공동체를 構成하고 있는 成員이다. 우리의 統一은 이러한 民族共同體意識의 발양을 原動力으로 삼아 南北으로 갈라지고 世界에 흩어져 있는 民族의 成員들을 國境을 넘어 하나의 共同運命體로 統合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선 둘로 갈라져 있는 南北 사회의 統一은 잃었던 한민족공동체를 이 땅에 다시 일으켜 굳건히 다져나갈 基盤이 되는 것이다. 南北韓에서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의 삶이 回復 發展되면 세계의 한민족 전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轉機가 마련되는 것이다.

7千萬이 한 겨레라는 뿌리의식과 民族的 正體性を 확인해 주는 民族共同體意識 교육은 歷史教育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한민족의 歷史와 傳統文化의 脈을 되찾아 보는 過程에서 특히 환기되어야 할 점은 北韓 共產政權下에서 자행해 온 歷史의 歪曲 특히, 金日成家系의 ‘혁명전통’을 捏造해 내기 위한 現代史의 歪曲 결과가 우리 民族史에 어떤 害毒을 남길 것인가를 省察케 하는 것이다.

22. 南北의 住民들이 서로의 世界觀, 價値觀 그리고 삶의 方式의 差異를 認定하고 상대방의 立場을 理解하도록 努力하는 것이 民族社會의 統合을 促進하고, 統一 以後의 삶을 準備하는 始發點이다.

원래 하나였던 우리 民族이 半世紀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아래 살아 온 때문에 쌍방간에는 사물을 보는 눈과 價値觀, 生活의 方式 등에서 많은 差異가 있다. 이러한 差異와 異質性은 휴전선 南과 北에 형성되어진 상이한 政治·社會·文化構造에 起因하는 것으로서 하루아침에 解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民族社會를 하나로 합쳐 이 땅에 統一을 成就하자는 우리의 努力은 오늘의 現實에 存在하는 이러한 상호간의 差異點을 서로 認定하고 상대방의 다른 立場과 價値觀을 理解하려는 노력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러한 相異點을 認識하는 일은 서로간에 意見의 合一點을 발견하고, 동족간의 葛藤을 解消해 나가는 일의 出發點이 되는 것이다.

이제 南과 北은 和解와 協力の 새 時代에 접어들려 하고 있다. 막혀있던 南北韓의 社會는 조만간에 開放되고 住民間의 만남과 接觸의 기회는 크게 擴大될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의 만남의 機會가

서로간에 相對方을 폭넓게 理解하고, '우리는 같은 民族' 임을 確認할 수 있는 和合의 場이 되려면 南北 사이에 달라진 삶의 양식과 異質性을 현실로 認定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또 民族成員 모두가 相對方의 다른 立場과 處地를 깊이 理解하고 자기의 立場과 利益만을 내세우지 않는 民族 和合的 態度와 폭넓은 理解心을 가지는 일 또한 統一 以後의 삶을 秩序있고 平和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된다.

그러나 南北 住民間에 개재하는 世界觀과 價値觀, 그리고 삶的方式上의 差異를 있는 그대로 認定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민족적 同質性을 되찾고, 民族共同體的 삶을 回復 發展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差異를 인정하고 理解하는 바탕 위에서 민족사회의 統合과 統一過程에서 예상되는 갖가지 葛藤의 素因을 豫見하고, 이를 하나씩 解消해 나가는 일과 民族的 同質化의 기반을 키워나가는 일을 統一教育의 現場에서 서둘러야 한다.

統一教育의 각 과정에서 특히 留意할 점은 첫째, 集團主義 社會에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으로 養育된 北韓住民들의 특이한 意識構造와 行動樣式의 특성을 올바르게 理解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존하는 南北社會의 精神文化的 差異와 異質性을 강조하는 나머지 이것이 統一을 어렵게 하는 基本的인 걸림돌이라는 誤解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23. 個人的 社會的 緊張과 葛藤, 利害關係를 合理的으로 調整하고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의 培養이 統一을 앞당겨 나가며 統一에 對備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각기 世界觀과 價値觀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階層과 集團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開放社會이며 多元主義社會이다. 따라서 社會成員과 成員사이, 社會集團이나 階層 사이에는 利害가 엇갈리고 主張하는 바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러한 利害關係의 相衝과 意見의 差異 때문에 個人的 社會的인 緊張과 葛藤이 끊임없이 發生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存在하는 이같은 서로 다른 利害關係와 立場의 차이가 效果的인 折衷 妥協의 과정을 거쳐 合理的으로 調整되고 統合되지 못하면, 國家나 社會가 지향해 나갈 方向과 目標가 정립될 수 없고, 또 共同의 目標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統一問題는 民族成員 개개인이나 소속 集團 階層에 따라 이해와 견해가 多樣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南北韓의 立場과 主張 또한 크게 다른 것이다.

이러한 多樣한 시각이 있는 까닭은 統一에 거는 期待와 價値, 그리고 現實感覺, 利害打算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主張이 있는 데 과연 어떻게 統一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각자가 自己 立場만 내세우고 對話와 讓步를 하지 않는다면 統一

은 궁극적으로 어렵게 된다. 서로가 大義를 위해서 小義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또 民族 전체의 利益 즉, 큰 利益을 위해서 個人과 所屬 集團의 이익 즉, 작은 利益과 고집을 과감히 拋棄·犧牲 할 줄도 알아야 한다.

一般的으로 서로 다른 사회 構成員의 意思를 효과적으로 合一시키고, 利害 當事者間的 이해 다툼을 원만하게 解決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社會 成員의 民主市民意識과 민주적인 意思決定 能力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태도와 民主的 意思決定能力, 行爲規範을 키워주는 教育과 訓練을 더욱 강화해야 할 時點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民主的 態도와 民主市民的 資質의 배양은 統一問題에 대한 우리 社會 내부의 和合과 團結을 기할 수 있어 統一을 앞당겨 나가는데 크게 寄與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의 삶을 對備하는 일이 된다.

앞으로의 統一教育은 통일에 관한 自身과 他人의 主張사이에서 생기는 葛藤과 緊張을 합리적으로 解消해 나갈 수 있는 能力을 심어 주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24. 統一을 앞당겨 實現하는 일 못지 않게 統一 以後의 삶에 對備하는 일도 民族의 繁榮과 發展을 위해 緊要하다.

交流·協力の 새 時代를 맞아 統一은 눈앞의 現實問題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제 統一을 앞당겨 實現하려는 일에 못지 않게 統一 以後의 삶에 對備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땅에 統一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念願할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의 삶이 일층 平和롭고 福된 것이 되고 統一이 된 國家에서 民族 전체가 繁榮과 發展을 기해 나갈 수 있기를 期待한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기대는 統一이 되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統一後의 民族사회가 더욱 繁榮하고 發展해 나가며 民族成員 모두가 福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 이를 對備하는 일들을 하나씩 서둘러 나가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課題는 국민 各自가 統一 以後의 民族共同體의 삶에 적응해 나갈 民族成員으로서의 바람직한 價値觀과 態度를 가지도록 國民에 대한 精神教育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다.

統一教育에서 이 主題를 다룸에 있어 특히 強調되어야 할 점은 첫째, 서로 다른 制度와 生活經驗으로 길들여진 南과 北의 住民들

이 하나가 되어 共同體의 삶을 살아갈 때 惹起될 갖가지 混亂과 不便, 葛藤要因들을 豫見케 하고, 이를 克服해 나가기 위해 國民各自가 사전에 準備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統一을 對備하여 각 분야에서 制度를 整備 改善하고 사회적 경제적 力量을 備蓄 強化해 나가려는 政府의 政策努力에 이 時代를 살고 있는 民族의 一員으로서 同參해야 한다는 使命意識을 고취하는 것이다.

셋째, 各自가 나와 내 家族 내 職場만을 생각하고, 내가 속한 集團이나 階層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偏狹한 利己心에서 벗어나 내 이웃과 내 同胞를 함께 생각하고, 사랑하는 폭 넓은 마음씨를 가지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25. 平和는 統一로 가는 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의 삶이 幸福한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 民族成員 모두의 意識 속에 定着되어야 할 最優先的 價値이다.

人間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平和는 우리 人類가 體制와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하는 普遍的 價値의 하나이다.

우리가 統一이란 歷史的 課業에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 平和는 韓半島에서 戰爭과 暴力이 없는 상태를 가르키는 소극적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갖가지 不義와 不公平이 지배하는 '構造的 暴力'으로 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확대된 개념의 積極的 平和 이어야 한다.

韓半島에서 平和를 추구하는 우리의 일차적인 目標가 남북 사이에 戰爭의 再發을 막기 위한 소극적 의미의 제도화된 平和를 정착시켜 나가려 하는 것이라면, 平和統一은 한반도에서 갖가지 '構造的 暴力'의 원천이 되고 있는 分斷과 冷戰의 극복을 통해 '확대된 平和'를 이루어 나가려는 민족적 努力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 平和는 상호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統一이란 民族 至上의 目標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前提가 되는 條件이며, 基盤的 秩序이고, 手段的 價値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平和는 우리 민족이 統一된 미래사회에서 平和롭고 福된

民族共同體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우선하여 추구될 價値의 하나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平和의 追求를 남북사이의 平和定着이란 政治的 制度的 側面에만 重點하여 高찰해 왔고 이를 위해 努力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統一의 主役인 국민 모두의 心性에 平和意識을 심어주고, 平和를 지켜나가려는 意志를 복돋아 나가는 일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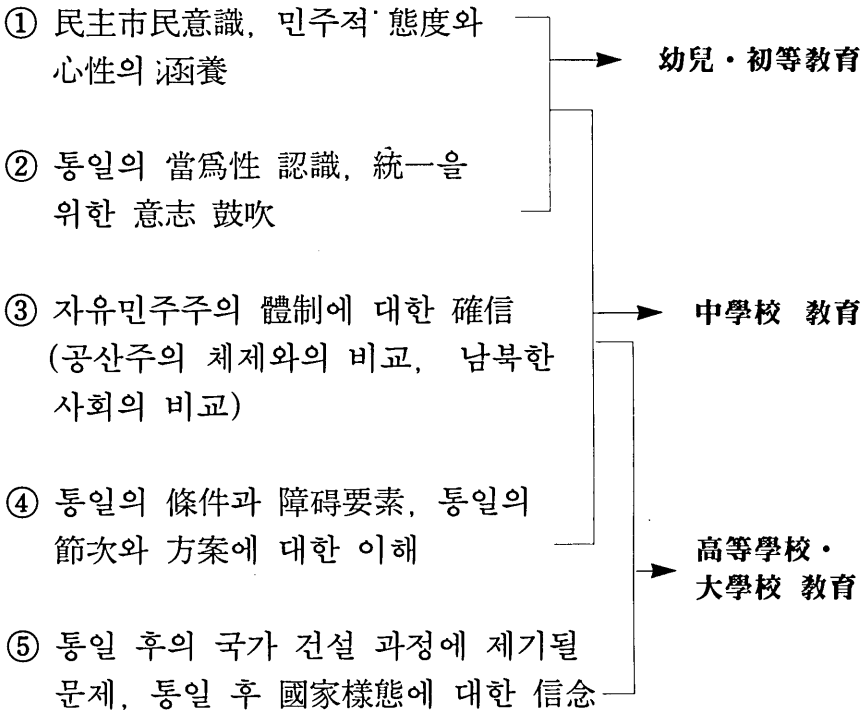
나라와 나라의 사이 뿐만 아니라 私人과 私人 사이에서도 평화로운 相互關係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안팎의 모든 挑戰要素들로 부터 平和를 지켜나가겠다는 당사자의 확고한 意志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平和守護의 意志가 확고하지 않은 곳에 恒久的인 평화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意志는 스스로 發揚되는 것이 아니다. 個個人의 평화의지는 平和의 價値를 인정하고 이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意識이 內面化되고, 하나의 價値規範으로 定着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統一教育은 이러한 평화추구의 意志를 뒷받침해 주는 平和意識을 개개인의 心性에 심어주는 데 더 큰 관심을 돌려나가야 한다.

IV. 實行上的 留意點

1. 學校에서의 統一教育

(1) 各급 學校에서의 統一教育의 目標은 다음 다섯가지로 設定할 수 있다. 이 다섯가지 目標중 각 教育段階에서 더욱 強調되어야 할 目標과 段階別 目標間의 連繫體系를 圖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새로운 「統一教育의 基本方向」은 각급 학교의 국민윤리 또는 윤리, 도덕, 사회, 역사 등 關聯 各 教科에 걸쳐서 反映되어야 한다.

○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統一教育은 그 目標와 內容이 서로 連繫되고 계속되며 反復的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초·중등과정의 사회·(국민)윤리·도덕 등 관련 教科목에서 취급되고 있는 民主市民教育의 內容體系는 새로운 統一教育을 뒷받침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相互 連繫되고 補强되어야 한다.

○ 기존의 教科내용이 본 指針과 相衝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教育과정의 개정될 때까지 본 指針이 提示하고 있는 方向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각급 學校教育에 있어는 제시된 주제 내용을 학생들의 知的 發達 水準에 따라 조정하여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學校教育課程에 있어 統一教育은 학생들에게 統一問題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傳授를 통해 理解力과 思考力, 判斷力을 길러주는 認知的 目標와 함께 統一 後繼世代로서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는 情意的 目標가 均衡있게 추구되어야 한다.

○ 知的 發達度가 낮은 국민학생 등 低學齡의 아동들에게는

知的 領域에 속하는 것 보다는 情意的 領域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 가르치고 高學齡層에 갈수록 認知的 領域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다.

- (4) 統一을 對備하는 教育은 各급 學校教育課程에서 서둘러 遂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교육에서는 남북간에 동질성의 회복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同族感情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장래의 統一國家의 국민이 될 後繼世代들에게 필요한 民主市民的 意識과 價値規範을 일찍부터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 (5) 중학교 이상의 統一教育에서 교사는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하는 일방적 注入式 授業方式 보다는 探究式 授業方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 探究式 수업에 있어서는 해당문제에 관련된 최신의 정확한 情報·資料를 학생들에게 폭 넓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6) 오늘과 같은 急變하는 세계정세와 남북관계의 전개 상황 하에서 公式的 敎科課程의 適時 改編이나 狀況의 變化에 따른 指導指針의 제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항상 이러한 變化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보다 正確한 知識과 신속한 情報를 입수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社會에서의 統一教育

(1) 目標 設定上的 留意点

- 새로운 사회통일교육에서 指向되어나갈 目標上的 位階는 다음과 같다.
 - ① 통일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준을 고양하고, 이를 토대로
 - ② 통일주체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인식을 고취하며,
 - ③ 개개인에게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와 論議態度 및 規範을 습득케 하며, 이상을 바탕으로
 - ④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態度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 위 네가지 位階의 目標 중에서 어느 것에 力點을 두어 教授를 전개할지는 教育대상의 水準과 教育기간의 長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短期教育(1~8시간의 教育과정)인 경우에는 네 목표 중의 ① 과 ②, 또는 ①~③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教育하는 것이 効果적일 것이다. 比較적 長期教育(2일 이상에 걸친 教育과정)인 경우에는 전체(①~④단계)를 적절히 安排하여 教授할 수도 있다.

(2) 內容 選定上的 留意点

- 선정된 教育내용은 위에서 설정된 목표를 效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理論的인 면에서나 事實的인 면에서 精確한 것이어야 한다.

- 선정된 교육내용은 가치면에서 국민정신교육이 지향하는 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특정 체제나 집단에 대한 敵對感이나 偏見이 介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선정 조직된 교육내용은 結論을 담고 있기 보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나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3) 指導上的 留意点

- 教授者의 교육목표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결론으로 제시하여 被教育者가 이를 믿고 따르게 하는 一方的 注入式 講義方式보다는 教授者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교육자들이 지지, 반대 또는 의문점을 기탄없이 제기하고 토론하여 결론에 도달케 하는 探究式 授業方式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教授者는 될 수 있는 한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관련된 교육 주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教授者는 피교육자들에게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폭 넓게 알려줌과 동시에 피교육자들이 스스로의 판단능력과 自覺으로 관련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

- 教授者는 통일에 관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개인, 집단, 국가의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折衷·妥協되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적 合意를 이루게 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체험케 하여, 피교육자들이 이러한 전개 과정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行爲規範을 習得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새로운 통일교육에서 教授者는 국민 각자의 역할과 책임 의식 및 행위 규범의 준수를 전제로 하는 민주적 論議規範과 절차의 合理性을 習得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成人에 대한 통일교육은 관련문제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傳授하고 바람직한 토론태도와 行爲規範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균형적으로 교수하되, 既成世代로서의 통일성취에 대한 공동책임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教材 및 資料 準備上의 留意点

- 통일교육은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 意圖的 教育 프로그램의 一環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成就目標와 내용을 詳細化하여 피교육자의 學習을 효율적으로 지도해 나갈 體系화된 教案의 準備와 활용이 필요하다.
- 새로운 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은 피교육자가 受動的으로 학습케 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활

동이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피교육자가 스스로 探究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며, 結論이나 代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료를 創案해서 學習過程에 제공해야 한다.

- 教授者의 教案은 교육대상과 課程別로 細分化하여 각 주제항목별로 3~4쪽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정 教授單位 時間當 1개의 教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單位別 教育展開案(instructional module)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5) 其他 活用上의 勸告事項

- 社會에서의 統一教育은 특정 교육·연수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신문·라디오·TV 등 각종 대중매체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단체 및 대중조직, 박물관, 전시관 등 社會公共施設物과 環境物 등의 다양한 政治社會化의 媒體들에 의하여 組織的으로 施行되도록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 모든 社會教育의 主管機關은 새로운 統一時代에 대비하여 통일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목표가 사회교육과정의 그것과 서로 相衝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編成되고 상호 連繫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 새로운 지침을 반영해 나가기 위해 각종 教育·研修機關의 教授要員을 비롯한 관련 프로그램 담당 教育要員 전체에 대한 專門 研修機會가 확대되어야 한다.

(附錄)

統一教育 參考文獻 資料目錄

1. 統一教育
2. 參考文獻
3. 資料目錄

1. 統一教育
2. 參考文獻
3. 資料目錄

南北韓 關係와 統一問題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통일원 통일정책실, 1992, 223p)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개막/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 및 경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합의서 이행기구 구성·운영/향후 실천 과제와 전망/부록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 (고려대 평화연구소편, 최상룡의 9,

법문사, 1990, 346p)

분단·점령 그리고 평화/ 분단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분단과 냉전, 그리고 북한체제의 형성과 변화/남북한의 정치·사회변화와 평화 /남북한간의 외교경쟁과 갈등/남북한 통일방안 수립의 기본 입장 비교/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평화통일의 좌표/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제환경 /한반도의 군사균형과 군비축소/남북한의 경제력 비교와 경제협력 가능성

남북한 UN시대의 새출발 (이도형 의 1, 자유평론사, 1992, 246p)

주변4강과 한국/한반도에 UN시대가 도래하기까지/한반도의 UN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통일의 선결과제는 무엇인가

남북한 통합론 (조정원, 희성출판사, 1989, 235p)

통일논의와 통합이론/한반도 분단의 기원/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국제통합이론의 분석/한국의 통합

민족의 정통성과 통일 (황성모 의 3, 자유평론사, 1991, 161p)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 조명/남북한도 협력과 화합의 시대로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우리의 노력/2000년대를 향한 통일의

이정표

민족통일의 모색 (통일원, 1990, 340p)

민족공동체의 현상학적 접근/통일의 전단계로서 안보공동체 형성 이론/남북 교류·협력 유도방안에 관한 연구/북한의 협상전략 기술에 관한 연구/남북한의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과학적 접근/북한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민주통일론 (통일원 통일연수원, 1991, 333p)

남북한 통일정책/남북대화 주요쟁점 분석/주변정세와 통일환경/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분단국가의 문화통합 (통일원, 1989, 292p)

종교와 체제통합/언어와 체제통합/예술과 체제통합/정치문화와 체제통합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 (이정준 외 1, 청림출판, 1991, 315p)

서론/남북한의 분단상황과 방송교류의 전망/냉전체제하의 강대국 전략방송/분단국의 통일정책과 전략방송/분단 남북한의 방송전략 정책/남북한 방송수용의 실증사례 분석/통일지향적 방송정책의 구상/ 참고문헌 목록

분단국 통일론—동서독과 남북한 (정용길, 고려원, 1988, 455p)

동독의 분단배경/동서독 교류의 실태/동서독 정치교육의 비교/서독 학생운동의 극복사례/서독의 동방정책/동서독과 남북한의 차이 등

분단국 통일문제 (통일원 통일연수원, 통일총서 11호 1990, 95p)

서론/독일의 통일문제/중국의 통일문제/월남의 통일문제/결론:
통일 전망

전환기의 남·북한관계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연구총서Ⅲ,
민병천 편, 대왕사, 1990, 312p)
한·중관계 발전의 과제와 전망/한·소관계 발전의 과제와 전망/
공산권과의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
장/북방정책과 미국의 입장/한국의 북방정책과 일본의 입장/북한
체제 변화의 정치적 요인/북한 경제정책의 기조와 변화가능성

전환기의 통일논쟁 (정용석, 나남, 1989, 370p)
민족분단과 통일의 역사적 의미/평화통일과 감상적 통일론/전환
기의 통일논리/반미 자유화와 통일논리의 허상/신식민지론과 통
일론/신제국주의론의 모순/민족사관과 통일론/남북대화의 특성/
북한실상과 통일접근/주변환경과 통일 문제/통일연구의 반성

전환기의 통일문제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연구총서Ⅱ,
민병천 편, 대왕사, 1990, 364p)
기능통합의 제이론과 적용문제/수렴이론의 문제점과 적용문제/연
방국가, 국가연합, 체제연합의 비교연구/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
화 연구/통일직후 남·북 베트남의 통합시도 과정/동·서독의 통
일정책/중국과 대만의 통일방안/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한국의
통일정책과 방안/중립화 통일논의의 이상과 현실/평화통일에의
제단계와 그 상황/전환기의 통일에 관한 국민의식 변화/남북대화
의 새로운 모색

통일논의의 제문제(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편, 대왕사, 1988,
278p)

한반도 분단책임의 재조명/한국전쟁의 기원/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인식/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연방제와 민족공동체/민족통일 주체론/남북한의 군축문제/주한미군과 전쟁억제/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 가입방안의 재조명/남북한 평화정책과 불가침협정 비교

통일문답 (통일원 통일연수원, 통일총서 7, 1991, 337p)

통일정책/ 남북대화/국제관계와 한반도/북한실상/이념문제

통일한국의 모색 (이상우편, 노재봉 외 9, 박영사, 1987, 441p)

하나의 한국을 향한 우리의 길/통일이념으로서의 민주와 자유/한국의 민족개념과 민족의 통합/통일한국에서의 복지:사상사적 접근/남북한 통일정책의 논리구조 비교:민족화합과 계급투쟁의 대결/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의 상황적 배경/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의 역사적·이념적 조명/남북한 통일 대화정책의 역사적 조명/정치적 통합방안으로서의 연방제/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안/상주 연락대표부의 역할과 기능/정상회담의 이론과 실제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통일원, 1989, 324p)

한국전쟁의 성격/한국전쟁과 동북아 냉전체제/한국전쟁이 중공정치에 미친 영향/통일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전쟁/한국전쟁의 유산과 북방정책/남북한의 군비통제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 (김학준, 박영사, 1989)

한반도의 분단과정－한국전쟁의 한 원인/한국전쟁의 기원/한국전쟁의 전개에 관한 북한 정치파벌의 입장/한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남북한 각자의 동맹국들과의 관계/한국전쟁기간에 제기된 휴전안들의 내용과 그 의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이흥구 외,
통일원, 1990)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와 실천방향/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한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형성이론/한민족공동
체 통일방안의 의의/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념적 측면/한민
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적 측면/「남북연합」의 제도적·실천적
과제/통일논의와 국민적 합의기반의 확충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노경수 외 7, 통일원, 1990, 198p)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합의/소련의 신 안보관과 북한의 군축정책
/소·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정치군사 질서/남북한간의 평화정착
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한
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한반도에서의 구조적 군비통제
방안/남북한 군비통제의 검증방안

한반도 통일론 (김용제, 박영사, 1990, 221p)

서론/통일의 이론적 제측면:통일문제/통합문제/평화공존 문제/통
일의 실제적 제측면:북한의 통일정책/한국의 통일정책/통일방안
의 새로운 종합/통일에 대한 장래의 전망:현재의 동향/중기적 미
래동향/장기적 미래동향/결론

北韓의 올바른 理解

김정일 (진성계, 동화연구소, 1990, 228p)

김정일의 등장/김정일 세습체제 구축/김부자 우상화/김정일의 지
도역량과 문제점/공산주의와 세습문제

남북한 비교정치론 (길영환, 문맥사, 1989, 351p)

개관/분단한국의 정치발전(1945~1970)/권위주의체제의 구축
(1971~1980)/1980년대 남북한 정권과 정치적 안정/정치문화
와 리더쉽/정치·경제적 성과/대내외 정책형태/남북 통일문제/결
론:분단과 경쟁

남북한 사회·문화 지표 (통일원, 1992, 231p)

토지 및 기후/인구/노동 및 가계/보건/교육/사회/체육/문화

방문자를 위한 북한편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0, 249p)

개관/가족제도와 관혼상제/일상생활/직장생활/각급 학교생활/
여가생활과 세시풍속/북한방문 수속 및 환전/교통 및 통신이용/
관광 및 쇼핑/숙박 및 편의시설/주요도시 안내/명승고적 소개/남
북한 관계

북한 개론 (최명 외 21, 을유문화사, 1990, 667p)

총론/헌법과 통치구조/정권수립과 변천과정/주체사상의 형성과
사상체계 분석/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사회주의 경제개혁/대외경
제관계와 딜레마/주민의 경제생활/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북한
의 대응/사회구조와 생활실태/사회복지제도와 운영실태/여성과
가족/사회변동과 사회문제/교육제도와 정책/문학/언론과 예술/남
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전망/종교단체와 종교생활/체육현황
과 전망/외교정책/군사상과 전략/통일정책

북한기행-재미 한국인학자 9인이 본 80년대 북한 (양성철외,

한울, 1989, 239p)

긴여행:금기의 땅을 가다/혁명 2대/평등사회의 참모습/무엇을 가
르치고 어떻게 배우나/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북한인민의 자화상

/고려연방제-통일의 길이란/자주외교 노선이 가는길/평양이 보는 일본/기행을 마치고

북한기행 8박 9일 (박정수 외 16,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1, 207p)
국회의원이 본 북한/수행기자의 북한기행/외신에 비친 북한

북한 40년 (이상우 외 6, 을유문화사, 1989, 671p)

서론:김일성체제의 특징/정치: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의 확립/경제:자력갱생정책의 이점과 한계/사회·문화: 교화구도화의 문제점/군사:일관된 전력우위 유지정책/외교: 혁명환경 조성을 위한 총력전/ 통일정책:지속성과 변화추세/총평:북한사회의 변화전망/부록:주요일지, 헌법, 당규약 등

북한사회의 변화추세와 전망 (통일원조사연구실, 1990, 494p)

주민생활편/종교생활편/체육생활편/노동생활편/의료보건편/교육편/문화예술편/언론출판편/가족 및 여성생활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김남식 외, 현장문화사, 1989, 326p)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재미교포 김동수 교수 강연/알기쉬운 북한 현대사/80년대 북한의 움직임/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수령·당·대중조직:북한의 통일전략과 통일방안/북한의 남북 군사문제 해결안/북한문학 40년의 흐름/북한의 혁명론과 실천과정/북한관계 문헌해제

북한의 경제 (이태욱, 을유문화사, 1990)

북한의 경제체제/북한의 경제발전 및 현황/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 (김동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9, 190p)
머리말/북한의 대학제도와 운영/대학교육의 이념과 정책/과의활동과 조직생활/대학의 입학과 졸업과 시험과목/북한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의 가치관/김일성 주체사상과 논리적 모순/김정일의 인간개조론/북한 대학생들의 최근소식/맺음말

북한의 말과 글 (고영근, 을유문화사, 1990, 429p)
언어정책과 언어규범/언어·문자생활의 제문제

북한의 문학 (권녕민, 을유문화사, 1990, 364p)
북한의 문학이론/북한의 시·소설·희극

북한의 사회 (강정구 편, 을유문화사, 1990, 304p)
구조와 변동: 북한 사회구조의 변혁/북한의 계급/북한 농촌사회의 변모/민중생활:북한의 교육/북한의 일상생활/북한의 보건의료/북한의 민속/북한의 종교

북한의 언어생활 (남성우 외 1, 고려원 1990, 331p)
문화어란 표준어와 어떻게 다른가/북한에서의 어휘정리/북한에서 새로 만들어진 특이 용어/북한에서 사용되는 속담과 은어/김일성과 관련된 언어표현/문화어 화법/언어에 대한 김일성교시 분석

북한의 예술 (김문환, 을유문화사, 1990, 467p)
북한의 미술/북한의 음악/북한의 무용/북한의 연극/북한의 영화

북한의 인권백서 (평화문제연구소, 1991, 184p)
법으로 본 북한의 인권/국제 인권기관이 조사·보고한 북한의 인권/내가 체험한 북한의 인권/북한 노동자의 인권실태

북한의 인권 (통일원, 양동문화사, 1989, 249p)

개요 및 건의사항/머리말/서론/역사적배경/국제법적 의무/자유와 평등/생존권/고문과 비인도적 처우/형사소송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구금 및 투옥/사생활의 비밀/이동/가족/재산권/종교/표현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참정권과 선거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본권/교육/문화/국제질서에 대한 권리/권리의 제한

북한의 정치 (전인영, 을유문화사, 1990, 471p)

사회주의 정권수립의 배경 및 과정/주체사상과 정치사회화/권력 구조/정치과정과 대내외 정책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 (김형찬, 한백사, 1990, 459p)

마르크스주의 도입기/주체사상 창시기/주체사상 확립기/주체사상 이론 정립기

북한의 통일정책 (신정현, 을유문화사, 1989, 460p)

남북분단에 대한 북한의 인식/북한의 통일목표와 전략/
6.25 전쟁과 북한의 통일정책/제네바 회담과 북한의 평화통일론/민족해방론과 북한의 통일정책/김일성 주체사상의 본질과 북한의 통일정책/인민민주주의 혁명론과 북한의 통일정책/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개와 목표/북한체제의 변화와 통일정책/한반도 군축과 북한의 통일방안/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통일정책/북한 통일정책의 특성과 한반도 통일전망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김정배, 을유문화사, 1989, 286p)

북한 「주체의 역사관」의 사상적 빈곤/한민족 본토기원설과 진국의 고대국가설/고조선과 삼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 동향/통일신라에 대한 「조선전사」의 서술과 그 비판/북한의 고려시대사 서술/

북한에서의 김옥균 연구/북한이 보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북한정책론 (유석렬, 법문사, 1989, 465p)

김정일의 대두와 권력승계/정책변화와 소련의 영향/정책일탈의
원인·유형 및 통제방법/정치정세와 개방화정책/북한과 소련관계
/북한과 중공관계/북한과 미국관계/북한과 일본관계/북한과 제3
세계 관계/남북대화전략/대남 협상전략/한국의 통일정책/한국의
정치교육

북한학 개론 (김갑철 외 9, 문우사, 1990, 515p)

북한의 정치체제/북한의 경제체제/북한의 사회·문화체제/북한의
안보와 통일정책/북한 사회주의의 미래

사회주의 사상 통일문학 (성기조, 신원문화사, 1989, 313p)

서론,

제1기 (45-58:광복/6·25 동란기)의 소설문학

제2기 (59-66:천리마운동/사상검토/계급교양/4 대군사노선)의
소설문학

제3기 (67-75:혁명전통/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 의 소설문학

제4기 (76-현재:세습체제)의 소설문학

결론

서울 문화, 평양 문화 (임채욱, 신원문화사, 1989, 347p)

북한에 대한 상식의 허실/국가상징과 정통성/역사관과 정통성/가
정생활과 삶의 질/문화양상과 정신상황/문화적 정통성과 통합

주체사상과 북한 사회주의 (김갑철 외, 문우사, 1988, 250p)

서론/공산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북한 인민정권의 수립과 마스·레닌주의의 수용/후르시초프의 등장과 주체의 강조/주체사상의 체계화/주체사상과 정책노선/김정일과 주체사상/결론-주체사상의 기능과 북한 사회주의의 전망

주체사상 비판 (이진경 편, 새길, 1989, 285p)

주체주의자의 사상과 실천/주체사상의 성립과정/주체사상의 철학적 문제/주체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주체사상의 혁명이론

통일을 위한 북한연구 (한용원, 박영사, 1989, 385p)

남북한의 분단과정/북한의 이데올로기/북한의 정치체제/북한의 경제체제/북한의 사회체제/북한의 대외정책/남북한의 통일정책

혁명전통의 부산물 (한국비평문학회, 신원문화사, 1989, 346p)

문예정책/문학예술총동맹/북한예술의 이모저모/남북파·월북파·재북파/사라져 버린 사람들

現代社會와 理念問題

공산주의는 끝나는가 (문명호 역, 동아일보사, 1989, 337p)

공산주의의 오늘/위기에 선 공산주의/스탈린주의의 기원/개혁으로 가는 길/기울어가는 프랑스 공산당의 유형/체코의 개혁과 반체제 활동/냉전은 끝났는가

공산주의와 현대 급진사조 (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222p)

공산주의 본질:마르크스·레닌주의/공산주의 혁명이론/공산주의 운동/공산주의 사회/공산주의 혁명전략전술:공산주의·전략·전

술의 일반운용 원리/북한의 대남 혁명전략/북한의 대남 혁명전술
/공산권의 변화상:공산체제의 특성과 구조/공산권 변화의 배경과
이념의 수정/정치개혁의 실태/경제관리구조의 변화실태/사회문화
의 변동/현대급진사조:네오 마르크시즘/유로 코뮤니즘/중속이론/
해방신학

공산주의자는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J. 술라이프 슈타인 외 3,
김정환 역, 새길, 1990, 165p)

페레스트로이카와 우리/인류문제와 계급문제

공산주의 정치체제 (화이트·가드서·쉐플린 공저, 서규선·박재주
공역, 인간사랑, 1989, 332p)

공산주의 국가의 비교연구/정치문화/정부구조/공산당/정책과정/
민주주의와 인권/비교관점에서 본 공산주의 국가

대실패: 20세기 공산주의의 출현과 종말 (브레진스키 저,
명순희 역, 을유문화사, 1989, 325p)

대실패/소비에트연방의 와해/체질적 거부반응/상업적 공산주의/
실패한 실천/공산주의 고뇌

대학의 통일논의와 현실 (이은호 외 3,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1990, 216p)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영향/북방외교와 통일/한반도 통일과 주변
국/한반도의 군축과 안보/주한미군과 핵문제/북한의 전쟁위협/전
쟁위협과 군축/북한의 사상체제와 정치구조/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현실/북한의 사회구조와 사회통제/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
책/북한체제의 변화전망/민중이론/급진이데올로기/자본주의 사회
주의

러시아 혁명 (디트리히 가이어 저, 이인호 역, 민음사, 1990, 272p)
구체제와 혁명/혁명의 사회적 전제조건/혁명의 정치적 전제조건/
전쟁과 혁명/구체제의 종말/혁명기의 비상 민주주의/이원적 권력
체제의 잠식/붕괴와 권력의 장악/민주주의와 혁명/초기의 소비에
트 권력/현대사의 문제로서의 러시아 혁명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정치이론 (크리스토퍼 피어슨 저,
어수영 역, 학문과 사상사, 1989)
마르크스-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로의 이행/민주주의:사회주
주의의 보호막/국가·권력·사회주의/이태리:제3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서전:복지자본주의 국가로의 지향/권력행사, 마르크스주의
의 아킬레스건/사회주의의 권리와 법규/사회주의 정치학을 위하여

문화전통과 사회발전 (고병익 외 11, 미원문화재단, 1991, 424p)
한국학 연구의 발전방향/문화전통과 한국인의 정체성/한국의 사
회발전과 문화전통/한국의 문화전통과 정치발전/문화전통과 행정
문화/문화전통과 통일의 과제/전통과 법질서/문화전통과 기업문
화/한국사회의 노동문화/문화전통과 교육문화/문화전통과 생활문
화/문화전통과 문화발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용필, 인간사랑, 1990, 287p)
민주주의의 전개과정/민주주의의 위기/개도국 민주주의 위기/다
원화 사회의 정치발전/민주적 정치체제의 안정과 평화/사회주의
사상의 근원/사회주의의 형성/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본질
/사회주의 혁명운동/사회주의의 유형/민주사회주의의 출현과 운
동/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 문제/사회주의체제의 퇴영/소련 사회
주의체제/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변혁시대의 사회철학 (김태길, 철학과 현실사, 1990, 496p)

현실로 부터의 출발(삶의 문제)/삶의 설계/소시민의 길과 대인의 길/집단생활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문제들/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최소국가론/고전적 사회주의의 역사관/수정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의론/민주사회주의의 이념/유토피아 그리기/한국의 근대화 과정/한국인의 의식구조/차선의 길(현실적 선택)/제도의 문제/인간교육의 과제

사적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안토니 기데스저, 최병두 역, 나남, 1991, 309p)

사회체계의 시·공간적 구성/지배·권력착취의 분석/시간 이동자로서의 사회/시·공간 거리화와 권력의 생성/재산과 계급사회/시간·노동·도시/ 자본주의:통합, 감시, 계급권력/국민국가, 민족주의 자본주의의 발달/국가:계급갈등과 정치질서/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 : 모순과 착취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총서 7권, 1989, 577p)

사회주의 언론사상/사회주의 국가의 국제언론/사회주의국가 통신사의 역할/글라스노스트와 소련의 언론/동구 사회주의국가의 언론/중국의 언론/북한의 언론/관련논문

사회주의여, 너는 어디로 (와다하루끼 저, 유영구 역, 1991, 277p)

사회주의의 20세기는 무엇인가?/시민유출로 고민하는 동독/스탈린체제에 저항한 헝가리/체코가 지향한 민주화/동구변혁의 선구자/대국 틈새에서 흔들린 발트 3국/탄압으로 지탱된 소련의 일당 지배/강제수용소의 비극/다시보는 사회주의체제 70년/역사를 기록한다.

왜 자유주의를 선택해야 되는가 (유종해 외, 민주이념발전위원회,
1989, 116p)
선택과 지배의 문제/생산과 분배의 문제/다양성과 조화의 문제/
전통계승과 창조성의 문제

유물론·이데올로기·종교 (PER. FRPTIN 저, 박재순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8,)
서론/물질적 토대의 탐구/유물론적 이데올로기 비판/종교비판의
방법/마르크스적 종교비판의 사례들/총괄과 전망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이삼열, 햇빛, 1991, 475p)
평화문제의 철학적 탐구/평화운동의 이론과 실천/민족통일의 실
천적 과제/평화선교와 통일의 실천/동서독의 통일과 그 교훈/평
화와 통일의 길목에서

한국사회와 이데올로기 (정연선 외, 형서아, 1989)
민족사적 정통성/소련 경제체제:권력집중의 딜레마/한국경제발전
전략/한국사회와 사회복지의 방향/한국사회와 이데올로기/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대학문화와 집단행태/엔트로피와 사회/기독교지성
인과 역사관

한국의 자본가 계급 (서재진, 나남, 1991, 271p)
서론:한국 자본가계급 연구의 중요성/자본가계급 형성이론/한국
자본가의 사회적 기원/한국 자본가계급의 자본축적/한국 자본가
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연줄망/한국 자본가계급 이데올로기/한국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조직(전경련)/결론

해방의 정치사적 인식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대왕사, 1990)

해방의 정치사적 의미/해방의 사회 경제사적 의미/광복 직전의 독립운동 상황/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의 정치노선/미·소 양군의 한반도 점령정책 정치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 분열/식민지적 유산의 청산과 정치문화의 변화/분단구조의 고착화

현대와 사상 (송두율, 한길사, 1990)

(I)

- 해방전후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방전후사를 보는 시각/한국 현대사에 대한 여러 인식
- 일제 식민통치시대: 일제 조선통치가 한국사에 미친 영향/제국주의 전쟁을 반성하는 두가지 모습/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의 김일성/독립운동에 있어서의 좌우익 노선/인촌 김성수를 친일파로 몰 수가 있는가
- 해방후의 좌우대립과 미군정: 해방정국의 상황과 여운형의 건국준비운동/신탁안에 대한 좌우파의 찬반논리/미군정의 역사적 위치/한국경제를 통해 본 미제국주의 정책

(II)

- 해방후의 좌우합작 및 남북협상: 해방후 좌우합작 노선과 그 방향/좌우합작 운동과 우사 김규식/해방후 김구 노선의 평가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 전쟁: 이승만과 대한민국정부 수립/한국전쟁의 원인과 결과/6·25와 남부군 유격투쟁/북한정부 수립과 건설/해방전후의 한국지성

國際關係와 韓半島

동아시아의 새 질서를 찾아서 (동아일보사, 1990, 325p)

태평양지역의 정치관계/아시아 태평양 경제관계/아태지역 군사·전략적 동향/한반도의 미래:평화적 통일에의 전망/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변화전망/아태지역 대결에서 협력으로

동유럽의 정치경제와 한반도 (최동희, 나남, 1991, 306p)

동유럽의 정치변혁과 북방정책/폴란드의 외교정책/동유럽의 경제 개혁운동의 현황과 문제점/동유럽 경제질서 개혁과 한국/동유럽과 북한관계/시베리아 극동개발과 한·소관계/동유럽의 변화와 북한

북방정책과 국제법 (김명기, 국제문제연구소, 1989, 257p)

북방정책의 개념/북방정책의 추진내용/남북한 동시 국제연합 가입/불가침보장 조약체결/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북방정책 추진의 국제법상 문제점/북방정책 추진의 국내법상 문제점/북방정책 추진의 국제·국내법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북방정책과 통일정책과의 관계

분단보다 통일비용이 싸다 (신창섭, 열음사, 1990, 280p)

독일이 통일됐다/통일과정/통일원동력/통독의 현장/통일과 미래

신세계 질서와 민족통일 (윤형진 외, 살림터, 1991, 305p)

동북아질서 재편과 한반도:한미관계/한일관계/한소관계/한중관계/조일관계/남북한 UN 동시가입에서 제기된 문제

21세기 대내외 환경변화의 전망 (21세기위원회, 1991, 405p)

통일환경 변화의 전망/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의 전망/향후 20년 동안의 방송과 신문의 변화와 정책적 대책/중·소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21세기 세계경제질서 변화와 동북아/미래사회의 국토환경/전환기의 한국기업의 도전과 기회/미국과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유럽의 정책적 대응/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방향/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에 대한 전망

21세기를 향한 한국외교 (이호재, 화평사, 1990, 514p)

21세기 한반도의 위상과 과제/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90년대 북한의 변화는 반드시 온다/북방외교와 남북외교의 장래/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을 위하여/90년대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제언/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한다.

통일독일과 한반도 (통일원, 1990, 226p)

동독의 무혈혁명/동서독 통일의 1단계/동독에서 첫 민주주의 선거/동독에 있어서 40년간 사회경제체제의 유산/제1차 통합조약과 정당간의 논쟁/경제·통화·사회통합 이후의 상황/동서독 통일의 2단계/남북한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본질적 차원/기술적 차원

통일독일 현장연구 (황성모, 도서출판 일념, 1990, 305p)

분단과 통일과정의 역사/통독현장을 가다/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통일후의 문제들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김학준, 박영사, 1990, 375p)

남북한 관계의 전개과정/주변강대국의 한반도 구상/아시아 주변국의 동향

한국사회의 발전과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변화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편, 1988)

현대 사회주의국가의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한관계 전망/동구국가
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소고/전후 북한의 자주노선 정립과 대외정
책/소련의 개혁정책과 한국의 소련접근 전망/중국 개혁정책과 한
국 북방정책의 관계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 (김철범, 평민사, 1989)

남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한국전쟁/미국의 대외정책과 한국전쟁/중
공의 대외정책과 한국전쟁/소련의 대외정책과 한국전쟁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김철범, 을유문화사, 1990)

6·25연구의 국제적 동향/한국전쟁의 의미-한국의 입장/한국전
쟁과 김일성의 통일전략/한국전쟁과 미국의 외교정책/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정책/한국전쟁과 중국의 외교정책

한반도 군비투쟁의 재인식-전쟁에서 평화로 (하영선, 도서출판
인간사랑, 1988)

70-80년대 한반도 군비경쟁과 미국·소련/70-80년대 한반도
군비경쟁과 남북한/70-80년대 한반도 군비경쟁과 한국/한반도
군비경쟁과 북한

한반도 군축 (이호재 편, 법문사, 1989, 555p)

한반도 군비경쟁의 현황/군비경쟁과 군축의 정치경제학/한반도
군축문제의 제쟁점/동북아 군사체제와 한반도 군축/남북한 평화
교육과 군축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제임스.L.매트레이 저, 구대열 역,

을유문화사, 1989)

무관심의 종언/냉전의 포로/해결책을 찾아서/인내와 결의/탈출로
/갈라진 집단/철수의 딜레마/봉쇄의 시험대/약속과 실천/공약의
이행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하영선, 청계연구소 1989, 300p)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동북아시아 군사체제와 한국/국제 군사체제

한반도 평화론 (이호재 편, 법문사, 1989, 490p)

한국유학의 평화사상/한국인의 평화사상/사회주의 평화관/인권과
평화/제3세계의 군사화와 평화/현대 전쟁체제와 평화/구조폭력과
평화연구/한반도 중립화안과 평화/한반도 군비축소의 현실적 모
색/평화공존적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평화논리와 안보논리/
민주화와 평화/남한의 정치변동과 평화/북한의 정치변동의 평화
문제